

천고밀림의 눈보라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밀림에서 보내신 자신의 어린시절을 추억하시며 이렇게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눈보라 울부짖는 백두밀림에서 태어나 총포소리 울리는 격전장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어린시절을 보낸 백두밀림을 잊을수 없으며 거기에서 깊이 내린 혁명의 녀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그 고귀한 말씀을 새겨볼수록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역세계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결출한 위인상이 승엄히 안겨온다.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간직된 백두의 눈보라는 혁명가의 참된 녀을 심어주고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는 더없이 신성하고 성스러운것이였다. 그 눈보라속에서 혁명의 녀을 간직하시고 필승의 기상과 배짱, 담력을 키우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의 눈보라를 그리도 사랑하신것 아니던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전환기마다, 새로운 구상을 무르익히고 새로운 결심을 다지실 때마다 백두산에 자주 오르시여 눈보라를 맞으시던 위대한 장군님,

백두의 눈보라에서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교무와 격려를 받으시며 눈보라강행군,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만만시련을 뚫고 우리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즐기치게 이끄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하기에 오늘도 백두의 눈보라는 전설적위인의 거룩한 한생을 전하며,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봄을 부르며 인민의 마음속에서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